연말 훈훈한 '기부행진'

'얼굴없는 천사농민' 쌀 65가마 결식아동 지원

비엔날레 대상 수상 서울 예술고생 상금 기탁

연말을 맞아 이름을 숨긴 한 농민이 결식아동에게 쌀을 지원하고, 광주비엔날레에서 수상한 고등학생이 상금을 지역 청소년을 위해 기부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불우이웃을 살피기 위한 기부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 몽탄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농민이 결식아동 돕기에 써달라며 쌀 65가마(1300kg)를 전남도청에 전달했다.

이 농민은 "결식아동을 돕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쌀만 도청에 전달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전남도는 기부자의 의견을 존중, 결식아동들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7곳에 기증 받은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 청소년눈예술상 대상을 받은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류성실(16)양도 상금 50만원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했다. 류양은 입체작품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를 출품, 이번 공모에 참여한 전국 297명 중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류양은 "아버지가 '고향에서 받은 상금이니 고향을 위해 쓰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전액 기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조각가가 되고 싶은데, 광주비엔날레가 저에게 소중한 자신감을 줬다"고 말했다.

류양의 아버지 기진씨는 고흥 출신으로, 사업가이자 '그 사람 찾으러 간다'를 부른 가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위가 일찍 찾아온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기부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 걱정했다"면서 "묵묵히 돕는 기부자들이 많아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잡은 한·일연안 시·도·현 지사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지사들이 지난 6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19회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두관 경남지사, 후루가와 야스시 사가(佐賀)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니이 세키나리 야마구치(山口)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아소 와타루 후쿠오카(福岡)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나카무라 호도 나카사키(長崎)지사. 〈전남도 제공〉

광주시청 직원 아이디어 공모 50건 선정

광주시는 7일 "직원 대상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 제안 5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50건 내에는 ▲할머니를 산모 도우미 및 유아 돌보미로 양성하는 방안 ▲시청사 1층을 미술관으로 꾸미는 방안 ▲택시에 운전자 명함 비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모에는 농촌지도사, 소방관, 민원실 창구 직원에서 국장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508명의 직원이 도시·교통·건축·환경·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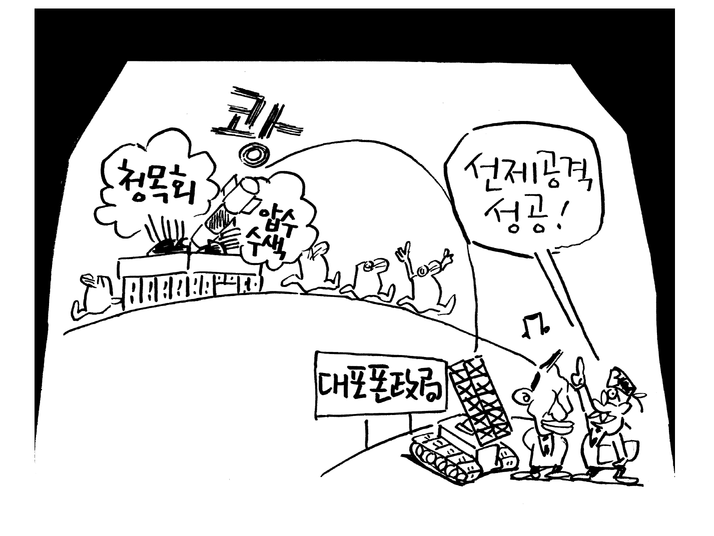
접수된 753건은 창의성·경제성·실현가능성·시민 편익성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 부서 검토, 광주발전연구원 심사, 과장급 및 국장급 심사를 거쳤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광주시장상과 함께 국내 산업시찰, 문화상품권 등 특전이 부여되고 우수·장려상을 수상한 10건의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호봉승급 등의 인사상 혜택도 별도로 주어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글쎄… 반격이 만만찮을텐데…

전라선 익산~여수간 복선 전철화 등

철도망 개량사업 88조 투자

전라선 익산~여수간 복선 전철화 등 전국을 1시간30분대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철도망 개량 사업에 88조원이 투자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20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안의 골자는 애초 계획과 비교해 투자비를 134조원에서 88조원(국고 59조원)으로 줄이면서 기존선을 개량해 대부분 노선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속화하는 것이다.

우선, 호남고속철도를 2017년까지 완공하고 기존의 전라선 익산~여수구간(187㎞)은 복선전철화해 KTX와 연계해 운영한다. 또 경전선 보성~임성리간(80㎞) 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광양~진주간(52㎞) 노선에 대한 복선화 및 전철화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65㎞) 복선전철화 사업은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20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

장휘국 제7대 광주시교육감이 8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풍물과 노래패 등 식전행사에 이어 취임선서와 취임사, 축하메시지 낭독, 교육감에게 바라는 동영상 상영, 축가와 카드섹션 등 축하공연, 합창 등의 순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장 신임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교육, 혁신학교 추진, 교육비리 척결 등 3대 핵심공약 등을 밝힐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보조사업 105건 축소·폐지

전남도는 7일 각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 총 105건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재정분석 전담팀을 투입, 도비 지원사업 총 398건(1112억원 규모)에 대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64건(50억원)을 폐지하고 32건(113억원)에 대해서는 융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지원규모가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큰 사업 9건(9억원)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는 등 총 105건 172억원을 재정분석 절감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몸값협상' 7개월 줄다리기 결국 100억원 주고 풀려나

■ 삼호드림호 피랍에서 석방까지

지난 4월 초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의 석방협상이 7개월 만에 타결됐다. 삼호드림호가 피랍 후 석방된 것은 217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2006년 4월 원양어선 동원호 피랍사건 이후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7건(선박 8척) 가운데 석방되기까지 최장 시간이 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삼호드림호가 해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석방 교섭이 타결되기까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삼호드림호는 31만9360t급 원유운반선으로 한국인 5명과 필리핀인 19명 등 24명을 태우고 지난 4월4일 오후 4시10분께 이라크에서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도중 인도양(북위 08˚21´, 동경 65˚00´)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정부는 다음 날 피랍지점으로부터 1500㎞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했고, 충무공이순신함은 그달 6일 오전 삼호드림호를 30마일 가까이 근접기동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해적들이 '충무공이순신함이 접근하면 선원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람에 구출작전을 펴지는 못했고, 삼호드림호는 피랍 사흘만인 7일 오후 소말리아 중북부 항구도시 호비요 연안까지 끌려가게 됐다.

이후 해적과 선사인 삼호해운 사이에는 삼호드림호 석방을 놓고 기나긴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됐고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정원 직원으로 상황실을 가동하며 협상의 측면 지원에 나섰다.

삼호해운은 해적들과 하루 1~2차례 전화통화하면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가며 교섭을 벌였지만 해적들이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피랍자 가족들은 사건 5개월이 흐른 지난 9월 초 "해적들이 선원들의 석방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해적에게 석방금액 지급을 약속해 선원들로부터 풀려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삼호드림호 선장인 김성규씨는 언론인터뷰에서 "해적들의 살해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안 재운채 이틀 동안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호드림호 선원들의 석방에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협상의 전면에 나설수는 없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개입하면 해적들이 자꾸 몸값을 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공산이 오히려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교섭과정을 물밑에서 차분히 지켜봐야 했고 결국 11월6일 삼호해운과 해적측간의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드림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950만 달러(약 105억원)를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HUMAN PLAZA 상가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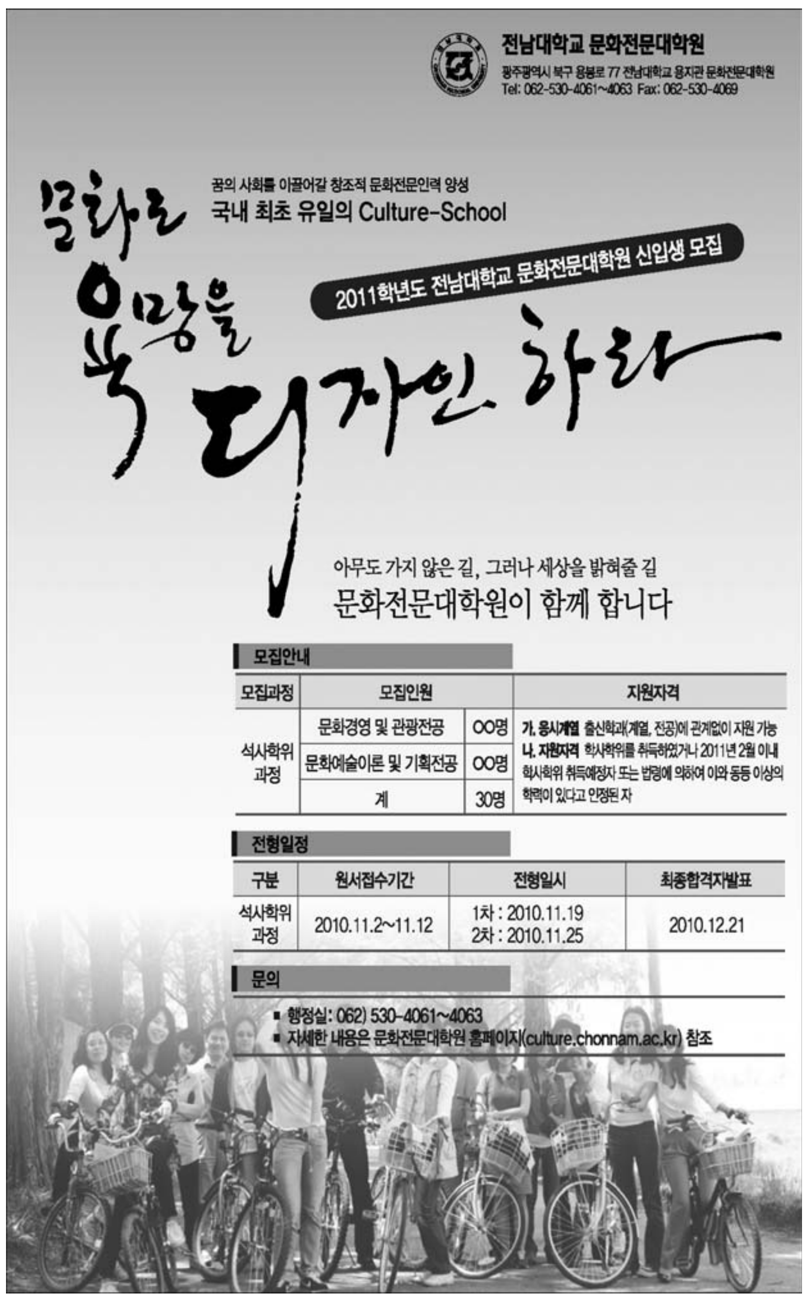
광주 진월지구 중심상업용지내의 최고 상권에 위치한 마지막상가를 입찰 방식으로 분양합니다.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63번지
대지면적	731.60㎡
규 모	지상 2층 / 연면적 858.92㎡
용 도	근린생활시설
입찰신청	2010년 11월 05일(금) 10:00 ~11월 08일(월) 17:00
개 찰	2010년 11월 08일(월) 17:30
낙찰자계약	2010년 11월 09일(화) 10:00~17:00

현장 확인 및 세부사항 안내는 현장 분양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62) 651-0666 【 H.P 010-8429-9000 】

• 시행 : (주)화인빌 • 시공 : (주)송아종합건설
• 관리은행 : 남광주신협 노대지점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기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강영우 박사 초청강연 | 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모법인인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착보좌관을역임한 강영우 박사를 초청,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주제하에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이번특강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의 명성뒤에는 굉이처럼 박힌 아픔을 불굴의 의지로, 후천적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롤모델이기에 국향 그윽한 만추를 적셔줄 강연이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은 광주일보사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많은 청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일자에 게재광고 남부대 강연일정은 오후 4시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장 소 : 전남과학대학 옥설관
오늘 오후 4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장 소 : 남부대 협동관 대강당

【경 력】

1995~현재	UN세계장애위원회부의장
1996~현재	루즈벨트재단고문
1995~2007	미전국장애법인이사
2001~2009	백악관국가장애위원회정책차관보(미4성장군에해당하는 SeniorExecutiveServiceLevel4)
1977~1993	노스이스턴일리노이대학특임교수

【공적및수상】

2008	미 피츠버그대학교 총동문회 2008년도 올해의 동문상(2008 UniversityofPittsburghDistinguishedAlumniFellowAward)
2007	연세대학교동문회,자랑스런연세인상
2006	루즈벨트대통령재단선정세계를움직이는위인127명중1인으로선정 http://rooseveltinstitute.org/projects/commemorative-chairs/young-woo-kang(127commemorativechairsinHydePark,NewYork)
2004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2006년도 인권상수상(AnnualHumanRightAwardfromFairfaxCounty,Virginia)
2004	미시간 주립대학 한국학 연구회 세계적 한국대상 (Global Korea Award)
2003	연세대학교명예문학박사
2002	아시아계미국인총연맹(AsianAmericanAlliance)공로상
2001~현재	세계저명인사인명사전(Who'sWhointheWorld)수록
2000	"우리가오르지못할산은없다"기독교출판문화협회,저자분야대상
1997	자랑스런재외동포상
1987	폴헤리스훽로우상(PaulHarrisFellow)

【저 서】

2009	오늘의도전은,내일의영광
2007	지혜가이끄는삶:성공적인삶을위한7가지방법
2006	꿈이있으면미래가있다.
2003	내안의성공을찾아라.
2000	우리가오르지못할산은없다.일본어와중국어로번역출간.
1998	아버지와아들의꿈
1995	교육을통한성공의비결
1987	빛은내가슴에,6개국어출간및미국회도서관녹음도서제작외다수

【학 력】

연세대학교	
1972	교육학전공문학학사,문과대학차석졸업
피츠버그대학,피츠버그펜실베니아	
1976	교육학전공철학박사

◦문 의 남부대학교 ☎062)970-0031~2 ◦홈페이지 www.nambu.ac.kr

주 최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후 원 광주일보사